

일반

## 인류세인가, 자본세인가

생태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균열\*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reconsidering a theoretical rift within ecological Marxism

최병두\*\*

이 논문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인류세와 자본세 간 논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태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이론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존 벨라미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론과 제이슨 무어의 세계생태론의 주요 내용과 상호 비판의 핵심 이슈들을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포스터는 마르크스의 저작들에서 물질대사 균열 개념을 도출하여 이론화하면서 물질대사 균열=소외=변증법으로 이해하지만, 무어는 포스터의 이론에서 물질대사 균열=분리=이원론이라고 해석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포스터의 주장을 데카르트적 이원론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무어는 자본주의를 ‘자연을 조직하는 방식’으로서 규정하면서 세계생태론을 주창하고, 장기 16세기 이후 자본주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부상 일/에너지, 착취와 전유, 저렴한 자연, 상품 프런티어, 추상적 자연, 가치관계, 생태적 잉여가치, 부정적 가치 등 다양한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포스터는 무어의 이론을 구성주의적 또는 인간중심주의적 일원론으로 치부하고, 실제 마르크스의 변증법과 가치법칙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한 것은 이들이 각자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제시한 주장들에서 상당한 난점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대방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도 어떤 오해나 왜곡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세부 주제의 차이와 대립적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와 자연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21 S1A5A2A01069700).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Honorary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

간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이 이론들을 결합시키고, 특히 마르크스의 소외론 및 가치론과 관련시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인류세, 자본세, 생태마르크스주의, 물질대사 균열론, 세계생태론, 소외론, 가치법칙**

## 1. 서론: 생태마르크스주의의 내적 균열

현대 사회가 봉착한 지구적 생태위기와 새로운 지질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첸(P. J. Crutzen)이 2000년에 ‘인류세’ 개념을 주창한 이후, 이 개념은 지질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나아가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반에서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개념의 유의성과 한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들이 유발되기도 했다. 생태마르크스주의 또는 생태사회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도 인류세 개념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이 제시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내적 균열을 보이게 되었다.<sup>1)</sup> 예로 물질대사 균열이론의 주창자로 잘 알려진 포스터 등(Foster, 2016; Foster, Holleman and Clark, 2019)과 앵거스(Angus, 2016), 사이토(2017) 그리고 카스트리(Castree, 2014, 2017) 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지질시대를 지칭하기 위해 인류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만, 세계생태론을 주창한 무어(Moore, 2016, 2017a, 2017b; 무어, 2000)와 다른 여러 학자들(Malm and Hornborg, 2014; Altvater, 2016; 해러웨이, 2019 등)은 이 용어의 사용에 반대하면서, 자본세나 그 외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포스터와 무어는 오늘날 생태마르크스주의를 주도하는 대표적 학자들로,

---

1) 인류세 전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의 입장에 관하여, 로일(2020) 참조.

이들의 위치는 포스터가 인류세에서 강조하는 ‘대가속화’ 시기, 즉 1945년 이후 행성적 생태위기 시대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생태학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서 제시한 3단계 시기 구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Foster, 2016; Foster and Burkett, 2016: 1~11).<sup>2)</sup> 여기에는 마르크스의 저작과 그 전통을 생태주의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생태마르크스주의뿐 아니라 이러한 전통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생태적 논의를 전개하는 생태사회주의도 포함된다. 첫 번째 시기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후반, 생태마르크스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 형성기로, 자본주의의 환경 파괴 경향으로 인해 급진적 환경운동에 사회주의적 사고가 연계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주요 인물로 코머너(B. Commoner), 마르쿠제(H. Marcuse), 스위지(P. Sweezy), 메자로스(I. Meszáro) 등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니어링(S. Nearing), 북친(M. Bookchin), 카슨(R. Carson) 같은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 생태사회주의의 발달 시기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M. Horkheimer and Th. W. Adorno)와 관련된 ‘자연 지배’의 ‘부정 변증법’이 영미권으로 파급되고 슈미트(A. schmidt)의 『마르크스의 자연 개념(The Concept of Nature in Marx)』 등이 번역·출간되었지만, 자연변증법과 여타 마르크스 저작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생태사회주의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연구가 촉진되었다. 포스터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는 2가지 분리된 전통을 등장시켰다. 한 전통은 그가 ‘첫 번째 단계의 생태사회주의적 사상’이라고 지칭한 연구자들(예로 A. Gorz, T. Benton, R. Eckersley, J. O’Connor 등)로 구성되며, 이들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마르크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보다 주류적인 녹색 맬서스주의적 개념화를 연계시키고자 했다. 또 다른 영향력

---

2) 1950년대 이후 현대 환경(생태)사상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기여와 발전 과정에 관한 포스터의 설명은 Foster(2014), Foster(2016), Foster and Burkett(2016: 1~11) 등 여러 곳에서 약간 다르게 제시되었으며, 사이트(2017: 94~95)도 생태사회주의의 단계 구분에 관한 포스터의 견해를 받아드려 마르크스의 생태학을 둘러싼 담론 구도를 설명한다.

있는 전통은 스미스(N. Smith), 카스트리(N. Castree) 등 급진적 지리학자들의 ‘자연의 생산’ 관점으로, ‘자연의 지배’에 대한 비판이 ‘자연의 생산’이라는 다소 긍정적 개념으로 전환했다. 포스터에 의하면, 이들은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결합된 사회적 구성주의와 일원론을 주장하면서, “점차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는 멀어지는 포스트모던 접근, 특히 사회와 자연의 ‘혼종성’을 강조하는 라투르(B. Latour)의 저작과 중첩되었다”(Foster, 2016: 396).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자연에 대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생태적 논의를 재발굴하려는 여러 연구들에 의해 생태마르크스주의, 일원론, 변증법이 혼재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의 생태사회주의에 대한 반명제로 두 번째 단계의 생태사회주의가 등장했으며, 여기에는 포스터(B. Foster), 버킷(P. Burkett), 알트바트(E. Altvater), 말름(A. Malm)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태적 개념화의 기반으로 되돌아가서 생태마르크스주의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세 번째 단계의 생태사회주의를 등장하도록 했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앵거스(I. Angus), 롱고(S. B. Longo) 등은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지구시스템에서 생태적 균열의 발달에 관한 탐구를 통해 생태사회주의적 실천의 영역으로 확대시키고자 한다.

생태마르크스주의의 발전과정에 관한 포스터의 이러한 설명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며, 다른 연구자들(예로, 사이토, 2017)도 이에 준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서 의문스러운 점은 그의 논문(Foster, 2016)에서는 무어(J. Moore)의 학문적 입장에 관한 서술이 빠져 있지만, 버킷과 공저한 『마르크스와 지구: 반비판』(Foster and Burkett, 2016: 7)에서는 무어의 후기 연구는 ‘첫 번째 단계의 생태사회주의’에, 그의 초기 연구는 ‘두 번째 단계의 생태사회주의’에 위치 지워져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한 연구자의 시계열적 초기와 후기 연구가 단계 구분에서는 바뀌어 위치 지워진 것은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포스터의 설명은 결국 생태사회주의의 발전과정에 관한 서술이라기보다는 생태사회주의 내에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연구자들을 분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포스터(Foster, 2016)의 논문에서 연이은 절, 즉 ‘생태마르크스주의 대 급진 생태학적 일원론(radical ecological monism)’에 관한 논의에서 확인된다. 즉 포스터는 자신이 제시한 물질대사 균열 이론을 생태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핵심적 기여로 설정하는 한편, 무어의 연구 및 이와 유사한 거의 모든 연구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류중심적 일원론을 위해 유물변증법과 비판적 실재론을 포기한 것으로 비판한다. 포스터에 의하면, 만약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기각한다면, 이들이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마르크스보다 라이프니치나 스피노자와 더 가까운 견해일 것이라고 주장된다. 이러한 치환으로 인해, 총체성의 변증법적 개념 내에서 자연과 사회 간 복잡한 매개에 관한 이해는 아주 흔히 간과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에 관한 마르크스의 개념화 노선에 따라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의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배제된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터는 지젝과 닐 스미스 등이 사회와 자연의 이원론적 견해를 비판했음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생태마르크스주의와 좌파 생태적 일원론 간에 간극 [즉 균열]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Foster, 2016: 398~399).

이러한 포스터의 주장에서, 그가 급진적 또는 좌파 생태학적 일원론이라고 지칭하는 연구자들 가운데 대표적 학자는 바로 그의 제자이자 동료이지만 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무어이다. 포스터는 무어 및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방법을 생태마르크스주의와는 분리시키고자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마르크스(주의)를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확장·발전시키고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사이트, 2017).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생태사회주의의 발전과정을 배경으로 야기된 생태마르크스주의 내 이론적 균열에 관해 존 벨라미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론과 제이슨 무어의 세계생태론의 주요 내용과 상호 비판의 핵심적 이슈들을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지질시대를 인류세 또는 자본세라고 지칭할 것인가의 문제도 거론되지만, 이 논문은 사실 이 문제 자체를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차적 논제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중요한 것은 현재 인류가 봉착한 지구적 생태위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실천적으로 극

복하기 위해 생태마르크스주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 2. 인류세와 물질대사 균열 이론

‘생태적 균열’ 또는 ‘물질대사 균열(metabolic rift)’ 이론은 존 벨라미 포스터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이 20여 년 전부터 생태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지구적 생태위기 간 관계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립하고자 한 이론이다(포스터, 2016; Foster, 1999; Foster, Clark and York, 2010; Foster and Burkett, 2016; Foster and Clark, 2020; Foster, 2021 등). 포스터는 마르크스의 저서들을 연구하면서, 마르크스가 맬서스주의 비판을 위해 독일의 농화학자 리비히(Justus von Liebig)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던 중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물질대사의 균열’이라는 중심 개념 — 자연의 소외에 관한 마르크스의 성숙한 분석 — 을 만들게 되었”음을 착안하여, 이를 보다 정교하게 이론화하여 자본주의 생태위기에 관한 연구에 응용하고자 했다(포스터, 2016: 20). 이들에 의하면, “생태적 균열은 …… 인간과 자연 간의 균열을 의미한다. …… 우리의 주장은 인간 존재와 자연 간 물질대사적 관계(생명 자체의 기반이 되는 물질대사)에 깊은 간극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의 근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이다”(Foster, Clark and York, 2010: 7).

포스터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은 이러한 물질대사 균열 이론을 자본주의의 자연 파괴적 경향과 이로 인한 지구적 생태위기의 발생 전반에 관한 설명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들에 의하면, 인류세 담론에서 거론되는 “행성적 한계를 벗어난 3가지 과정들(즉 기후변화, 질소순환, 생물다양성 손실) 각각은 우리의 용어로 행성적 시스템에서 극단적 ‘균열’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행성적 한계와 균열에 관한 분석은 …… 우리가 오늘날 인류가 봉착한 생태적 위기의 전체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Foster, Clark and York, 2010: 14~15). 예로,

기후변화나 지구적 생태위기들로부터 인간을 구해줄 것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자본주의의 기술적 조정(technical fix)은 오히려 지구환경을 더욱 퇴락시키고 인간과 자연 간 물질대사 균열을 촉진한다. 또한 ‘종이 없는 사무실’의 신화처럼 자본이 자연 자원의 한계로 유발되는 경제적·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제시되는 전략들은 그 자신을 역사적으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물질대사 균열을 통해 위기를 지연시키는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된다. 이들은 노동운동이나 사회환경운동이 물질대사 균열을 제거하고 인간과 자연 간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운동으로 규정한다(Foster, Clark and York, 2010: 43, 82, 407).

물질대사 및 이의 균열에 관한 포스터의 논의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르크스의 『자본』에 소급된다. 마르크스는 대규모 산업과 농업이 어떻게 결합하여 토양과 노동자를 황폐화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물질대사 균열의 개념을 제시한다. 마르크스는 『자본』 제3권에서 리비히<sup>3)</sup>를 언급하며, 농업인구의 감소를 촉진하는 대규모 토지 소유와 대도시 인구 밀집을 유발하는 대규모 산업화가 “사회적 물질대사의 상호의존적 과정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대규모 공업과 산업을 추구하는 대규모 농업에 관하여 “원래, 전자는 주로 노동력, 따라서 인간의 자연력을 낭비하고 파멸시키는 반면, 후자는 토지의 자연력을 낭비하고 파멸시킨다는 점에서 구분되었지만, 이후의 발전과정 속에서 이 둘은 서로 결합되었다”고 해석한다(마르크스, 1990: 999; 포스터, 2016: 334; 이광근, 2020: 119 재인용). 즉 농업 및 공업의 자본주의적 산업화(그리고 도시화) 과정은 본래 결합된 통합 메커니즘으로서 물질대사에 사회공간적으로 균열을 유발함으로써 인간의 노동력과 토지

---

3) 리비히는 생리학 용어였던 물질대사를 농·생화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일반화시켰을 뿐 아니라 사회공간적 현상들을 설명하고 비판하는데 응용했다. 예로 그는 물질대사(균열) 개념을 통해 텀즈강의 수질 저하와 런던의 과잉인구를 동시에 비판한다. 농촌에서 생산되어 도시로 공급된 에너지원이 소비된 후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버려짐으로써 도시의 수질과 농촌의 토양이 동시에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포스터, 2016: 322~333).

의 자연력을 동시에 착취하고 황폐화시켰다.

마르크스는 『자본』 제1권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물질대사 균열로 인해 초래된 사회생태적 문제를 거론한다. 즉 물질대사는 “자연이 부과하는 인간의 영원한 존재 조건”이며, 인간은 “자신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자기 자신의 행위(노동)에 의해 매개하고 조절하고 통제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과 이를 위한 대도시 인구의 집중과 집적은 “사회의 역사적 동력을 집중”시키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과 토지 사이의 물질대사적 상호작용을 교란한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부의 원천 — 토지와 노동자 — 를 동시에 파괴”한다(마르크스, 1991: 225~226, 233, 635~636; 포스터, 2016: 335; 이광근, 2020: 119 재인용). 마르크스는 이처럼 『자본』 1권, 3권 외에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등 여러 저작들에서 물질대사에 관해 언급했으며, 엥겔스도 『반두링론』, 『자연변증법』에서 이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예로 마르크스는 『경제학 수고, 1861~1863』에서 “현실의 노동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연의 전유이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매개하는 활동”이라고 서술했다(포스터, 2016: 338 재인용).

포스터(2016: 339~340)는 마르크스가 이 개념을 통해 2가지 사항, 즉 인간의 욕구 충족과 생존을 위하여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과 사회 간 보편적·생태적 물질대사적 상호작용을 지적하고, 또한 사회적 의미로 자본주의 안에서 소외된 형태로 전개되는 물질대사의 균열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고 지적한다. 즉 물질대사 개념은 “생명체가 외부의 자연환경과 맺는 지속적인 물질대사적 상호교환”(엥겔스, 1989: 314)이라는 생태학적 의미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하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 전방위적 욕구와 보편적 수용능력 간의 일반적인 사회적 물질대사 체계”(Marx, 1973)라는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이광근, 2020: 120 재인용). 전자가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관계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 특유한 인간과 자연 간 소외된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물질대사의 개념은 포스터의 연구에 앞서 메자로스(István Mészáros)의 저서들에서 논의된 바 있다. 포스터(Foster, 2016: 414)에 의하면, 메자로스



는 그의 스승이며 연구를 도왔던 루카치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연구에는 물질대사적 상호작용의 매개자로서 노동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기본 범주가 빠져 있음을 확인하고, “사회와 자연의 물질대사에 관한 마르크스의 개념이 존재론적·인식론적 기반의 관건임을 제시하고자” 했다. 메자로스(Mészáros, 2000)는 『자본을 넘어』에서 ‘사회적 물질대사’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질대사 상호작용을 역사적으로 고유한 방식으로 (재)조직하는 양식, 즉 자본주의를 하나의 ‘사회적 물질대사 통제 양식’으로 분석하고자 했다(사이토, 2020: 100). 또한 메자로스는 『소외론』에서 “마르크스의 소외이론의 개념적 구조를 인간-생산-자연의 삼각관계로 이해”하고, “여기서 생산은 인간과 자연 간 매개(물질대사)의 형태를 구성하며, 인간은 자연의 ‘자기 매개적’ 존재로 인식”하는 유물변증법적 관계를 설정했다(Meszáros, 1970: 104, 162~165; Foster, 2016 재인용).

마르크스와 메자로스의 연구에 관해 포스터(Foster, 2016)와 사이토(2020) 등이 이해한 바와 같이, 인간과 자연 간을 매개하는 물질대사는 2가지 유형, 즉 역사를 초월하여 인간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질대사와 특정한 역사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물질대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질대사는 모든 역사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생태적 과정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을 대상으로 노동함으로써 이러한 물질대사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른 한편, 물질대사는 사회적·역사적 노동과정에 조응하며, 그 구체적 형태는 해당되는 각 단계의 사회관계에 의해 매개된다. 예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고유한 자본의 논리, 즉 가치 증식의 극대화하는 이에 걸맞은 특정한 사회적 물질대사를 매개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과 자연 간 물질대사의 기본 형태는 “모든 것을 자본 축적이라는 명령에 절대 복종시키는 물신숭배적이고 소외적인 사회적 물질대사 통제 체제를 스스로 확대해야 하는 필요에 부응한다”(Meszaros, 2000: 140; 사이토, 2020: 101). 즉 포스터(Foster, 2016)는 자본주의하에서 사회적 물질대사는 자연의 보편적 물질대사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과 사회의 물질대사의 특정한

소외된 형태이며, 이는 물질대사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실제 ‘균열’의 형태를 취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터에 의하면, 물질대사와 이의 균열에 관한 이론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생태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즉 그는 “마르크스 사유의 핵심은 당시 존재하던 유물론 및 자유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전통을 발전시키고 변형시킨 방식”에 있으며, “이 전통은 상당수의 근대 과학적·생태학적 사유가 등장하는 데 필수불가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유물론과 생태학은 필연적으로 연관되며, 이의 결합으로 물질대사(균열)론이 구축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바스카(R. Bhaskar)에 따라 유물론을 존재론적·인식론적·실천적 유물론으로 구분하고,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은 헤겔의 관념적 변증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증법적 유물론 속에 존재론적·인식론적 유물론을 포용하면서도 실천적 유물론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포스터, 2016: 25~26). 여기서 실천적 유물론은 우리의 “물질적 실천을 통해 세계와 우리의 관계를 변혁하고 우리의 세계로부터의 소외(즉 자본주의적 물질대사의 균열)를 넘어…… [새로운] 인간적·자연적 관계들을 만들어”냄을 의미한다(포스터, 2016: 31~32, 36).

포스터는 이러한 유물론이 생태학과 결합되면서, 변증법적이고 유물론적인 자연관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연관은 자연 세계가 어떤 목적론적 의도에 순응하는 견해(유심론적, 생기론적 또는 기계론적 자연관)와는 달리, 유기체와 환경 간 상호관계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진화한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인간과 자연 간 균열로 인해 사회생태적 위기가 발생·심화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균열로 초래된 이중적 소외, 즉 노동의 소외와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인간중심주의 대 생태중심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변증법적 관계의 문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터는 데카르트와 베이컨으로 소급되는 이원론을 강하게 비판한다. 즉 그에 의하면, ‘자연의 지배’라는 사고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인간중심주의나 유기체론적·생기론적·포스터모던적 (또한 구성주의적) 견해에 입각한 생태중심주의는 모두 이원론에 머물러 있으며, 이

들은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를 표현하기 때문에 초월해야 할 범주들이라고 주장된다(포스터, 2016: 45). 요컨대 포스터에 의하면, 실천성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에피쿠로스, 다윈, 리비히 등이 제시한 ‘변증법적 생태학(또는 자연주의)’과 결합하여, 포스터가 구축하고자 하는 물질대사(균열)이론을 뒷받침한다.

포스터는 물질대사 균열에 관한 첫 연구(Foster, 1999)에서 이를 3가지 사항으로 논술한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에서 인간의 생산과 그 자연적 조건 간에는 균열이 있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현존의 자연적 조건으로부터 인간의 물질적 소외가 존재한다. 셋째, 물질대사 균열은 도시-농촌 대립에서 지리적으로 표현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이토(2020: 104~112)는 마르크스, 메자로스, 그리고 포스터 등에 의해 정형화된 물질대사 균열과 이의 전가 과정을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차원으로, 리비히가 ‘약탈농업’이라고 지칭한 자본주의 농업으로 인해 발생한 자연의 물질대사 순환에서 이루어지는 균열이다. 이러한 균열로 인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질대사의 자연적 순환이 교란되면서 농업에 필요한 생태적 조건이 훼손된다. 인간과 자연 간 물질대사 균열은 다른 2가지 차원, 즉 공간적 및 시간적 균열을 동반한다. 공간적 균열은 자본주의에서 조직된 공간, 곧 ‘도시와 시골의 대립’에 고유한 균열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의 사회공간적 분업과 관련된다. 공간적 균열은 장거리 무역 등을 통해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되며, 생태적으로 불평등한 교환을 동반한다. 시간적 차원은 자연의 시간과 자본의 시간 사이 발생하는 균열이다. 자본은 가치 증식의 극대화를 위해 생산 및 유통 속도를 촉진하여 회전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지만, 자연은 자본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양자 간에 시간적 균열이 점점 더 확대된다.

이러한 물질대사 균열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심화되고, 이로 인해 자연 자원의 고갈과 가격 상승, 이로 인한 이윤율 하락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본은 자원 활용을 위한 기술 혁신을 추구하지만, 기술적 해법(즉 기술적 조정)은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균열을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시키게 된다. 예로 약탈농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화학비료(농약, 살충제 등)의 생산과 사용은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생태계의 정상적인 물질대사 기능을 교란시켜 생태위기를 심화시킨다. 또한 공간적 해법(즉 공간적 조정)으로, 유럽 중심부에서 발생한 물질대사 교란은 지구 남반부에서 수입된 유기물 자원으로 부분적으로 해소되지만, 이는 남반부에 물질대사 균열 문제를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 포스터 등(Foster, Holleman and Clark, 2019)에 의하면 이러한 해결책은 생태제국주의를 초래하고 중심부에 의한 주변부의 노동 착취와 더불어 자원의 강탈을 지속시킨다. 또한 물질대사의 균열에 대한 해결책은 시간적 차원에서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 미래에는 기후 변화와 같은 지구적 생태위기를 극복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물질대사 균열의 시간적 전가로 균열은 더욱 심화될 뿐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물질대사 균열에 대한 포스터나 사이토의 대안은 이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및 생활양식을 대체하는 것이다. 물질대사 균열은 인간과 자연 간 관계에서 시공간적으로 더욱 심화되지만, 한없이 전가될 수는 없다. 물질대사 균열로 인한 희생은 자연에게 더욱 가혹하게 전가되고, 인간사회에도 농촌 지역과 주변부 국가들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불평등하게 전가된다. 이러한 지구적 생태위기와 사회공간적 불평등 및 소외를 심화시키는 물질대사 균열에 대한 궁극적 해법은 결국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생태사회주의로의 전환이다. 포스터는 최근 저서 『자연의 귀환: 사회주의와 생태학(The Return of Nature: Socialism and Ecology)』(Foster, 2020)에서 사회정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통합시키려는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W. Morris, F. Engels에서부터 J. Needham, R. Carson, S. Gould에 이르는)를 재이해하면서, 이들이 변증법적 자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지구의 평화와 인간의 집단적 필요에 부응하는 장기적인 생태적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생태사회주의로 전환에 관한 사고는 지질시대 구분에 관한 그의 제

안에 반영된다(Foster and Brett, 2021). 이들은 2018년 국제층서위원회(ISC)에서 홀로세의 하위 절(age)로 그린랜디안, 노스그리피안, 메갈라얀 절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에 착안하여, 1950년대 이후 새로운 지질시대를 기존에 논의된 것처럼 인류세로 명명하지만,<sup>4)</sup> 그 하위 절로 앞 시기를 캐피탈리니안(capitalinian) 절로, 그리고 이 절이 단절적으로 새로운 지질시대로 이어진다면 이 절을 코뮤니안(communian) 절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코뮤니안 절은 ‘코문적’, ‘공동체’, ‘커먼즈(common)’ 등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인간과 지구 간 사회적 물질대사가 조절되고 행성적 한계 내에서 또는 자연의 보편적 물질대사 내에서 작동하도록 보장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매우 포괄적 의미로서의 생태적·사회적 혁명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관계를 급진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역사적 인간이 생존하게 된다면, 오늘날 그 자체 목적으로 맹목적 이윤 추구에 집착하면서 지구시스템에 인류유발적 균열을 초래하는 자본주의적 문명은 공동적 사용가치에 뿌리를 둔 생태 문명으로 필히 교체되어야 한다. 이는 오늘날 광범위하게 관련된 행성적 실존위기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 3. 물질대사 균열이론 비판과 재이해

#### 1) 물질대사 균열론에 대한 비판

물질대사(균열) 이론은 그 자체로서 인간과 자연 간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

4) 포스터(Foster, 2016; Foster and Brett, 2021)는 인류세를 “인류중심적 생물권의 미래 발전이라기보다는 행성적 지구의 자연사에서 인위적 변위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는 인간 역사 과정에서 생산의 양적 변화에서 질적 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생긴 균열로 인류세 연구자들이 과학적 증거로 제시하는 1950년대 ‘대가속화’ 시기에 조용한다고 지적한다.

이해하는 존재론적·인식론적 틀이며, 관련된 여러 개념들(특히 자연으로부터 소외)을 구축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이론은 현재 유발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구적 생태위기를 분석하기 위해 응용될 수 있으며, 환경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들에도 원용되고 있다. 사이토(2020)는 이러한 물질대사 균열이론을 적용한 분석들이 해양생태학, 기후변화, 질소 순환 붕괴, 토양 고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질대사 균열이론이 타당할 뿐 아니라 유익하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으며, 자신의 연구도 분명 이러한 전통에 따르고 있다고 서술한다. 물질대사 균열 이론은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적 맥락에 원용되면서 물질대사에 따른 자원의 흐름 또는 순환과정을 이해하려는 도시생태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예로 스윈저도우(Swyngedouw, 2006)<sup>5)</sup>와 여타 연구자들은 도시를 물질들의 흐름 공간으로 설정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 내 및 도시와 시골 사이 물질들(예로, 물, 에너지 등)의 순환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포스터를 중심으로 제시된 물질대사 균열이론은 한때 그의 제자이자 공동연구자였던 무어에 의해 신랄하게 비판되고 있다.<sup>6)</sup> 애초에 무어는 세계체계론적 관점에서 지구적 환경위기의 역사와 그 원인으로 물질대사 균열을 설명하고자 했다(Moore, 2000). 여기서 그는 장기 16세기 “자본주의의 등장은 정치, 경제, 사회의 영역들에서의 결정적 이행뿐 아니라 ‘물질대사 균열’, 즉 시골과 도시 간 영양순환의 점점 심화되는 단절로 특징 지워지는 세계생태계의 근본적인 재조직화라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자신의 논문을 요약한다(Moore, 2000: 123). 그러나 그의 연구가 점차 진행되면서, 무어는 오히려 물질

5) 그러나 스윈저도우(Swyngedouw, 2006)의 연구는 논문의 부제목에 명시된 것처럼 물질대사(균열)론에 근거를 두지만, 다른 한편 포스터가 무어뿐 아니라 닐 스미스와 카스트리를 비판하면서 지적한 ‘혼종적’, ‘자연의 생산’ 등의 개념을 동시에 원용하고 있다.

6) 무어(2020: 13)는 자신의 이론이 “20년 전에 존 벨라미 포스터와 나눈 대화에서 처음 구상되었다”라고 서술하면서 “이 책의 많은 논술이 오늘날 존의 주장과 어긋나더라도, 스승이자 동료로서 그에게 내가 진 빛은 헤아릴 수 없다”고 감사를 표한다.

대사 균열을 넘어서 세계생태의 관점에서 지구적 생태위기를 설명하고자 한다(Moore, 2010). 그뿐 아니라 무어는 세계생태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정형화하여 제시한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에서, 물질대사 균열 이론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에서 출발하여, 많은 부분들에서 이 이론을 비판하면서 대립적 관점에서 자신의 이론을 서술하고, 정당화하고자 한다.

포스터 등이 제시·발전시킨 물질대사 균열론에 대한 무어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이 이론이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어는 물질대사 균열론자들이 인간과 자연 간 관계에 주목하지만, “사회체계가 자연체계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사회체계가 자연체계를 파괴한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자연의 파괴는 가속화되고, ‘행성적 위기’로 유도한다. 재앙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서술한다고 지적한다(무어, 2020: 134). 이러한 “파괴와 분리”에 관한 강조는 자연을 외적 한계로 다루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무어에 의하면, 포스터는 마르크스에 따라 처음에는 총체성에 대한 관계론적 이해를 제시했지만, 물질대사(균열) 이론은 그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처럼 인간과 자연을 유기적 전체로 이해하고, 데카르트적 이원론과 근대성이 자본주의가 이윤추구를 위해 생명과 자연을 조직하는 자본주의적 이행(shifts)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추적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이로 인해 그 자체로 자연과 사회 간 분리를 위한 메타포가 되었다고 비판된다. 달리 말해 “물질대사 중심의 연구들은 관계적 존재론(자연 속의 인간)의 철학적·담론적 수용과 자연/사회 이원론의 실천적·분석적 수용 간 풀 수 없는 모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무어, 2020: 148, 134).

이러한 이원론에 대한 무어의 비판은 물질대사 균열이론 전반에 적용된다. 우선 무어에 의하면, 물질대사 균열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좌파 생태론의 경우에,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사회+자연’인데, 이것은 변증법적 절차라기 보다는 산술이다. 사회적 한계가 있고, 그리고 자연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두 단위체, 즉 자연과 사회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도 특정되지 않고, 게다가 사회적 한계가 자연적 한계를 형성하는 방식(그리고 그 역의 방식)도 연구되지 않

는다. 각 한계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오히려 단언된다”(무어, 2020: 140). 무어는 변증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는 변증법이 “우리가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주요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회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합 또는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과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무어가 사회적 및 자연적 한계와 관련하여 인간과 자연 간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포스터의 입장을 비판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포스터가 인류세 연구자들이 제시한 ‘행성적 한계’의 개념을 수용한 점도 포함된다. 무어는 포스터 등 (Foster et al., 2010: 74)이 행성적 한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이원론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질대사 균열이론이 “역사적 한계에 관한 정적이고 비역사적인 이론”이라고 비판한다(무어, 2020: 141). 그는 역사적 자연이 포괄적으로 엔트로피 과정, 즉 자연의 퇴락 과정에 따르지만, 이 과정은 특정한 한계 내에서 역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어는 이러한 한계에 관한 포스터 등의 논의 방식이 분석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연적 한계의 물질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 방식은 자연을 단지 피동적 방식으로 인지하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면서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는가에만 관심을 둘 뿐이고, 자연이 생명의 그물 속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간에 의해 공동생산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무어, 2020: 142).

무어의 이러한 비판은 포스터나 사이토 등이 마르크스와 메자로스에 따라 정형화하고자 한 물질대사 균열의 2가지 차원, 즉 보편적 물질대사와 자본주의에 특정한 사회적 물질대사를 구분한 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무어는 물질대사 이론가들이 “두 가지 물질대사, 즉 사회적 물질대사와 자연적 물질대사를 상정함으로써 “자본, 권력 그리고 생산의 독특한 물질대사가 어떻게 자본주의적 역사의 장기적 경로에 따라 불균등하게 전개되는가?” 등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무어, 2020: 142). 이러한 점에서 무어는 포스터가 구분한 보편적 물질대사와 자본주의에 특이한 사회적 물질대사를 구분한



것을 통합시키고자 한다. 즉, 무어는 “물질대사가 준독립적인 대상들 — 자연/사회 — 사이의 교환이 아니고 오히려 생물권과 인간 주도의 과정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형성 과정이라면 …… 인식적 균열은 어쩌면 초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일한 물질대사’ 개념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무어는 이러한 단일한 물질대사 관점은 “자본과 권력, 자연이 표상하는 실재들이 이원론적 범주 안에 가두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무어, 2020: 146).

무어는 나아가 포스터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이원론, 즉 ‘존재론적 균열이자 인식적 균열’로 인해, 인간과 자연에 의해 공동생산되는 가치관계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가치 개념은 “어떤 자연(예로 임금노동)은 가치 있게 여기고 대부분의 자연(여성, 자연, 식민지)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관점에 전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필연적 귀결은 자연을 외부적인 것으로 강력히 소외시키는 구상”이었다고 비판된다(무어, 2020: 151). 이러한 점에서 무어는 가치형태를 전제로 한 이론을 비판하고 가치관계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단언한다. 특히 무어는 물질대사 균열론이 이원론에 사로잡혀 가치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적어도 축적을 ‘경제적’ 과정으로 여기는 부당하고 협소한 관점(축적은 이런 과정을 훨씬 넘어서는 것임이 틀림없다)과 거의 특정되지 않은 자연 ‘파괴’에 대한 부당한 강조가 그러하다”고 주장한다(무어, 2020: 148). 또한 무어는 물질대사 균열론이 생태제국주의적 국제관계를 논하면서, 이러한 가치관계를 분열과 약탈이라는 종속이론적 어휘를 사용하지만, 부의 노골적 강탈이라는 사고보다는 자신이 제시하는 ‘저렴한 자연’의 개념이 자본의 끝없는 축적을 위한 설명에 더 유의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 2) 물질대사 균열론과 비판의 재이해

무어가 왜 포스터와 물질대사 균열이론에 대해 이렇게 비판적 관점을 가지

고 그들과 대립적 입장에 서게 되었는지에 관한 개인적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무어가 이에 관하여 제시한 몇 가지 중요한 비판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반면, 동시에 지나치게 특정 측면만을 부각시키거나 또는 이 이론의 함의를 다소 왜곡하거나, 심지어 그 진의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무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원적 자연/사회는 근대 세계의 거대한 폭력과 불평등, 억압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 자연을 외부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은 자본 축적의 기본조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자연/사회 이원론을 포함하여 데카르트적 이원론, 즉 “인종, 젠더, 성, 유럽 중심주의의 이원론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무어, 2020: 19)은 매우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원론들은 이에 따른 구분이 자연적이고 기능적인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허구적이고 위계적인 근대성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체계에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면한 지구적 생태위기를 유발한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무어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포스터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세계를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고, 이를 구분하려는 모든 이원론적 주장들을 비판하고자 했다. 즉 그는 자연의 지배를 강조하는 인간중심주의와 낭만적인 유기체론적·생기론적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두 비판하면서, 이들은 변증법의 한 쪽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초월되어야 할 범주들이라고 주장한다(포스터, 2016: 45). 포스터에 의하면, “생태적 균열은 …… 인간과 자연 간의 균열을 의미한다. 세계는 실제 하나의 구분 불가능한 전체이다. 오늘날 이 전체를 쪼개고 파괴하고자 위협하는 균열은 인간 내 인위적 구분의 산물이며, 우리를 우리 존재의 물질적·자연적 조건으로부터 그리고 연이은 세대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다(Foster et al., 2010: 7). 즉 포스터 등 물질대사 균열론자들은 자본주의 생태학과 지구적 생태위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총체성 속에서 부분들의 변증법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이해의 틀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물질대사 균열론이 무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데카르트적 이원론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인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에 엄격한 선을 그려서 주장의 경계를 설정하는 ‘인식론적 균열’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겠다.

물론 포스터가 마르크스에 따라 총체성을 강조하는 일원론적 존재론을 채택했다고 할지라도, 자본주의에서 특정한 (즉 소외된) 인간과 자연 간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이들을 인식론적으로 분리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포스터 자신에 의해 직접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름, 사이토 등이 포스터의 입장에 동의한 점에서 확인된다. 말름은 인류세 개념을 비판하면서 무어에 앞서 ‘자본세’라는 용어를 주장하지만, 무어(Moore, 2014: 86)는 그의 주장이 ‘존재론적, 인식적(epistemic) 균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원론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무어는 석탄 자본에 관한 말름의 논의가 화석연료 물신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즉 무어(2020: 285)는 말름과 포스터 등을 포함한 일부 생태마르크스주의적 설명에서 “자본은 생명의 그물과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외생적인 힘으로서 자연에 개입하는데, …… 그리하여 미리 주어진 ‘인류와 자연의 전통적 균형’에 다양한 방식으로 침입하여 교란”하는 것으로 가정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무어의 비판에 대해, 말름(Malm, 2018)은 무어가 포스터 등이 ‘자연 속의 노동(labour-in-nature)’ 또는 ‘노동 속의 자연(nature-in-labour)’이라는 용어 대신에 ‘노동과 자연’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데카르트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 간을 구분하는 것이 실체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사물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데카르트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대응한다.

또한 사이토(2017)도 무어의 일원론적 이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마르크스가 명백하게 이원론적 용어들을 사용한 이유를 검토하면서, 마르크스의 ‘비데카르트적 이원론’이 오늘날 생태위기에 관한 근본적 비판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토에 의하면, 비데카르트적 이원론을 반영한 마르크스의 물질대사 이론은 자연과학 및 비서구 사회에 관한 마르크스의 집중적 연구를 통해 제안된 것이며, 또한 이는 혁명적 주체의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된다. 사실 무어도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무어가 변증법을 단순히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 이상의 것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행위주체들의 프로젝트와 다발을 이룬 자연들의 무질서한 움직임을 통해서 공동 생산되는 과정의 변증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라고 서술한다(무어, 2020: 91~92).<sup>7)</sup> 이 점에서 포스터가 3가지 유형의 유물론들 가운데 존재론적·인식론적 유물론을 부정하지 않지만 실천적 유물론을 부각시킨 것은 인간과 자연 간 관계를 매개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인간의 주체성(또는 행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포스터가 인간중심주의적 이원론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행위 주체들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 무어와 포스터의 주장은 인간과 자연 간 관계에 관한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어가 지적한 것처럼, 물질대사 균열론이나 포스터의 주장에서 자연은 기본적으로 인간 역사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공동 진화하는 능동적 행위 자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피동적인 사물 또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즉 포스터(2016: 44)는 “인류와 자연 사이에서 진화해가는 물질적 상호관계들(마르크스의 용어로 ‘물질대사의 관계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자연은 “우리가 생물권 안에서 계속 변화하는 현실적 인간 존재의 물질 조건들”로 이해될 뿐이고, 실제 자본이 자연을 어떻게 파괴하고 물질대사의 균열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인 반면, 역으로 자연이 구체적으로 인간(또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포스터의 저서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무어는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론이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어도 축적을 ‘경제적’ 과정으

7) 그러나 무어는 데카르트적 대립쌍의 양쪽 모두에 행위 주체성을 할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행위 주체성은 인간 자연과 비인간 자연의 특정한 다발의 관계적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데카르트적 이항 구조에서 벗어나고서야 적절히 파악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무어, 2020: 75).

로 여기는 부당하고 협소한 관점……과 거의 특정되지 않은 자연 ‘파괴’에 대한 부당한 강조가 그러하다”라고 주장한다(무어, 2020: 148).

또한 이러한 점에서 포스터가 인류세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 개념으로 제시된 ‘행성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무어의 비판을 이해할 수 있다. 즉 포스터 등(Foster et al., 2010: 436)이 지구적 생태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연의 행성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들의 설명이 정적이거나 비역사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행성적 한계가 자연에 의해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설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 사회경제체제와 지구생태 시스템 간의 관계에서 과학자들이 제기한 이러한 한계를 상대적 (또는 관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재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로 물질대사 균열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Foster, 2010: 436). 그러나 포스터 등이 상대적·비교적 관점에서 행성적 한계에 관한 과학적 증거들에 근거를 두고, 물질대사 균열의 관점에서 인류세 위기를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러한 자연의 행성적 한계가 자본주의 정치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매우 미흡하다.

다른 한편, 물질대사 균열론에는 무어의 비판 이상의 어떤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무어는 이 이론을 비판하면서, “균열’로서의 물질대사는 자연과 사회 사이의 물질적 흐름에 전제를 두고 있는 분열의 비유”로 간주한다(무어, 2020: 135). 즉 무어의 비판에서 물질대사 균열은 대체로 자연과 인간 간 단순한 분열 또는 분리로 이해된다. 그러나 포스터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실제 자본주의의 물질대사 균열 메커니즘이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균열 메커니즘은 인간과 지구 관계를 신비화 또는 물상화하여, 자본이 노동과 자연을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Foster et al., 2010: 84). 이러한 점에서 포스터의 주장 저변에는 항상 서로 연계된 인간의 소외와 자연의 소외 개념이 깔려 있다. 무어도 포스터의 이론에서 핵심 통찰은 “자연 소외와 인간의 생산 소외를 단일한 모순의 양면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임을 인정한다. “이 덕분에 우리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자연이 결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사회적 노동을 축적하는 데 구성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도 중요한 세계 역사로 여길 수 있게 된다”라고 동의한다(무어, 2020: 147).

그뿐 아니라 무어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이 단순히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적 추상 관념임을 인정한다. 즉 “데카르트적 대립쌍은 한낱 가면이나 환상, 일탈에 불과한 것으로서의 추상 관념이 아니라, 세계에서 작동하는 힘으로서의 추상 관념이다. 데카르트적 대립쌍은 추상적인 사회적 노동과 추상적인 사회적 자연으로서의 가치 형성의 변증법에서 창출된 흥미로운 종류의 실재적 추상관념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에서 생겨난 — 그리고 그 발전에 내재하는 — 추상관념으로, 초기 근대 유물론 혁명과 과학혁명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인지한다(무어, 2020: 51). 그러나 무어는 이러한 추상 관념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실질적 힘으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지구 관계의 신비화 또는 몰상화’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뒤에서 논의할 것처럼, 무어는 “자본의 저렴한 자연 전략이 노동의 추상화뿐 아니라 자연의 추상화, 시공간의 추상화를 동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르페브르가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자연의 추상화, 공간(그리고 시간)의 추상화는 인간을 자연과 공간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메커니즘임을 이해하지 못했다(최병두, 2018).

이처럼 무어는 자신의 주장에 소외와 관련된 여러 함의들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맑스나 맑스주의적 연구에서 주요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 소외(그리고 몰신성, 몰화 등)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를 거부한다. 즉 무어는 포스터가 “자본과 계급, 물질대사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결합”하고자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물질대사 균열을 소외의 심화 과정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한다. 대신 그는 “물질대사는 균열(rift)(누적적 분열)이 아니라 전환(shift)(잠정적이고 특정한 통일)을 식별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Moore, 2017c),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와 자연의 견고한 이원론을 초월한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방법으로 나

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무어, 2020: 147~148). 그러나 인간과 자연 간 보편적 물질대사와 사회적으로 특정한 물질대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자본주의적 인간들 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에 심화되고 있는 사회생태적 소외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 4. 자본세와 세계생태론

무어의 세계생태론은 역사적 자본주의와 역사적 자연에 관한 ‘통합’ 이론을 지향하며, 여기서 세계생태(world ecology)로서 자본주의는 변증법으로 결합한 권력과 자본, 자연의 패턴이 있는 역사로 파악된다. 무어 자신은 세계생태론을 만물에 관한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론적 기반으로서의 시각”이고, “생명의 그물/인간/비인간 관계……를 경계 짓고 다발로 묶는 방법”이며,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인간 경험, 과거와 현재의 인간 경험을 이론화하기 위한 틀”이라고 규정한다(무어, 2020: 2, 30, 62). 세계생태론은 무어가 브로델(F. Braudel), 아리기(G. Arrighi), 월러스틴(I. Wallerstein) 등 세계역사분석 전통의 여러 학자들, 포스터와 버킷, 말름 등의 생태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하비의 역사지리 유물론 등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서 구축된 지적 자원들을 섭렵·종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이광근, 2020). 또한 여기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라투르 등의 관계론적 관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어는 2000년대 초부터 생태마르크스주의적 이론을 세계체계론적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연구 그리고 역으로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을 생태마르크스주의적으로 재검토하는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2010년대 이후 무어는 세계생태분석을 하나의 독특한 시각 또는 방법론적 틀로 발전시키면서 초기에 의존했던 물질대사 균열이론과는 상이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이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현실 세계의 다양한 환경(생태)문제들에 원용하고자 하는 포스터 등과 열띤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생태론에 바탕을 두고, 무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세’라기보다는 ‘자본세’로 더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어는 자본세를 “생명의 그물 속 권력, 이윤, 재/생산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그는 ‘인류세’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하면서, 대신 ‘자본세’ 개념의 유의성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인류세 개념이 “유럽중심적인 인류의 풍경으로 되돌아가면서 자원결정론과 기술결정론이라는 유사 깊은 관념들에 의존”하는 한편, 자본세는 시원적 자본주의가 등장한 장기 16세기 이후 “자본의 끝없는 축적을 특별히 우선시하는 관계들로 형성된 역사적 시대”로 규정한다(무어, 2020: 279). 그는 자본세 명칭에 동의하는 학자들(예로, 해러웨이, 알트바트 등)과 함께 『인류세인가, 자본세인가(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라는 책을 편집하면서(Moore, 2016a), 인류세 담론이 “그 대중성이라는 점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우리 시대에 근본적인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점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인류세 담론은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한 경고를 울리지만, 이러한 경고적 변화가 어떻게 초래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 권력과 계급, 인류중심주의, 자연과 사회의 이원론적 틀, 국가와 제국의 역할 등에 관한 의문은 인류세 관점에서는 흔히 덮여버린다”라고 비판한다(Moore, 2016b: 5). 이러한 점에서 무어는 인류세 담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녹색사상에 내재하는 인간/자연 이분법의 불편한 관계”를 벗어나서 “자연-속-인간, 인간-속-자연을 사고하는 새로운 방법”에 바탕을 두고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조직한 자본주의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자본세 개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Moore, 2017a; 2017b).

이와 같이 인류세에 대한 무어의 비판과 자본세에 대한 옹호는 기본적으로 그가 정립하고자 하는 세계생태론에 근거를 둔다. 이 이론은 무어가 자신의 견해를 종합하여 출간한 『생명의 그물망 속 자본주의』에서 3가지 서로 관련된 주제 또는 주장들로 이루어진다. 첫째 주제는 자연과 사회의 통합적·관계적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과 자연 간 데카르트적 이원론이 만연



하여 주류와 좌파를 막론하고 정치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이원론에 빠져 자본주의와 지구적 생태위기에 관한 연구를 제대로 이끌어어나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새로운 개념적 장치를 개발하여 이원론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주제는 자본주의를 단지 경제시스템이 아니라 ‘자연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연-속-자본주의’와 ‘자본주의-속-자연’을 통합하여 그 역사적 공생산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한 새로운 개념들에는 ‘저렴한 자연’, 무상 일/에너지, 착취와 전유, 추상적 자연, 가치관계, 생태적 잉여가치, 부정적 가치 등을 포함한다. 셋째 주제는 사회-자연을 조직하는 방식으로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가 어떻게 저렴한 자연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해소하는가, 그리고 저렴한 자연의 고갈로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우선 무어는 주류 환경론이나 사회이론뿐 아니라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현대 생태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도 이원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로 그는 인류세 연구자들이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것과 자신의 세계생태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비록 유사한 점을 가지지만, 그들은 인간과 자연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이원론적 방식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무어는 엥겔스의 자연 변증법에 제시된 ‘자연의 보복’ 개념을 비판하면서, 엥겔스의 논의에는 비역사적·비역동적으로 파악되는 ‘자연의 한계의 몰상화’가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그의 논의는 결국 자연이 언젠가는 인간에 ‘보복’을 가한다는 파국론 또는 종말론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무어, 2020: 141). 무어의 이러한 비판은 엥겔스만이 아니라 앞서 논의한 것처럼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론이나 말름의 ‘화석 자본’ 개념 등에도 적용된다. 즉 물질대사 균열론은 인간이 수동적이고 정적인 자연에 미치는 파국적 결과에 초점을 둘 뿐이고, 자연을 통해 전개되는 자본주의의 발달사를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무어는 이러한 자연/사회 이원론을 그가 명명한 ‘이중적 내부성’ 또는 ‘오이

케이오스(oikeios)'라는 비이원론적 관점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중적 내부성이란 자연을 통한 자본주의의 운동과 자본주의를 통한 자연의 운동이라는 이중 운동을 의미한다. 오이케이오스는 이러한 이중 내부성을 개념화한 것으로, “중과 환경의 창조적이고 발생적이며 다층적인 관계” 또는 “인간과 비인간 자연 간에 맺어지며 항상 자연에 내재하는 창조적이고 역사적이며 변증법적 관계를 명명하는 방식”(무어, 2020: 23, 71~72)이라고 정의된다.<sup>8)</sup> 무어에 의하면, 이 용어는 자연-사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제로, 자연을 자원이자기보다는 매트릭스 또는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명은 자연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트릭스로서의 자연을 통해서 전개된다(무어, 2020: 73, 89). 이러한 오이케이오스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연-속-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가 자연에 행한 것의 위기가 아니라 자연이 자본주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의 위기”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무어, 2020: 62). 무어는 이 개념을 마르크스의 물질대사 개념에 내재한 변증법적 논리를 보다 근본적으로 더 정교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무어, 2020: 88).

무어는 이러한 오이케이오스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가치법칙을 이해하고, 자본주의의 기원에서 현재까지 그 발전과 위기, 재구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무어, 2020: 95). 이러한 점에서, 무어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사회 이원론과 포스터의 이론이지, 마르크스의 연구나 마르크스주의 이론 자체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는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옹호하고 정치경제학 비판과 생태학을 접합함으로써 비로소 자본세에서 마르크스 이론의 잠

---

8) 무어(2020: 72)에 의하면, 이 단어는 식물종과 환경 간 관계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생물학자인 테오프라스토스(Theophrastus)가 고안한 용어로, 오이케이오스 토포스, 즉 ‘호의적 장소’를 뜻하는 용어에서 유래한다. 무어(2020, 73)는 “오이케이오스가 식물과 동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성의 다양한 지질학적 및 생물권적 배치와 순환,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서술한다는 점에서, 지구 행성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파악하는 ‘가이아’ 개념과 비교된다.

재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단언한 것으로 해석된다(사이토, 2017: 97). 무어(2020: 101)에 의하면, 자본주의에서 가치법칙은 2가지 국면, 즉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인 사회적 필요노동을 강조하는 가치형태와 유기적 전체로 결합된 착취 관계와 전유 관계의 확대를 의미하는 가치관계로 구분된다. 생태마르크스주의 내에서 데카르트적 이원론의 관점에서 가치를 개념화할 경우 관계보다 실체(즉 가치형태)를 특히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만(무어, 2020: 97), 세계생태론에서 가치관계의 역사적 특정성은 착취율을 좌우하는 임금노동을 포함할 뿐 아니라 미자본화된 자연(토양, 여성의 일, 농민 재/생산)의 동원을 포괄한다.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치는 노동에 의해 창출되며, 특히 자본가에게 이윤 등으로 배분되는 잉여가치는 생산과정에서 사회적 필요시간을 기준으로 지불되지 않은 노동, 즉 무상(즉 부불)노동을 통해 창출된다. 무어는 이러한 노동(labour)의 개념에 더하여 일(work)의 개념을 도입한다. 무어는 ‘일’을 “자본주의적 권력의 뺨침 내에서 인간과 자연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수행된 활동으로 임금이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지 않은 전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일의 개념은 재생산적 일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결정하는데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어는 그 동안 마르크스주의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의 근본적 기여”를 무시해 왔음을 지적하고, 유상 노동과 더불어 인간 및 자연의 무상 일/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단기적 농업 활동, 세대 간 자녀 양육 시간, 화석연료 형성의 지질학적 시간 등을 포함하는 자연의 무상 일은 자본의 유상 노동이 펼쳐지는 바탕이 된다. 무어(2020: 41~42)에 의하면, 인간 및 자연의 무상 일/에너지는 물질대사 균열론에 대한 집착을 넘어설 뿐 아니라 마르크스가 제시한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간 구분이 지나치게 범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가치는 상품생산의 노동생산성, 즉 상품에 묻혀 있는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무어에 의하면, 가치는 “상품 생산에서 노동력의 착취를 통해 그리고 동시에 자연의 생명-만들기 역량의 전

유를 통해” 형성된다(무어, 2020: 161). (잉여)가치는 변증법적으로 관련된 2개의 과정, 즉 노동력과 원료의 투입을 통해 생산을 자본화하는 과정(즉 노동력의 착취 과정) 그리고 노동과 자연의 재생산을 전유하는 과정에 의해 창출된다. 자본이 경제적 위기를 회피하려면, 경향적으로 증가하는 지구적 자연의 자본화보다 더 빠르게 무상 일/에너지를 전유해야 한다. 그는 이를 “전유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of appropriation)”이라고 지칭한다(무어, 2020: 161).<sup>9)</sup> 이는 경제 외적 과정들, 즉 전적으로 강제되는 과정뿐 아니라 문화적이고 계획적인 과정들로, 자본이 거의 또는 전혀 상품화되지 않았거나 또는 가능한 무상에 가깝게 자연에 대한 접근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어는 ‘저렴한 자연’의 개념을 도출한다. ‘저렴한 자연’이란 “역사적으로 특정한 의미에서 ‘저렴’한데”, 특히 4가지 저렴한 투입물, 즉 “식량과 노동력, 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주기적이고 철저한 감축으로 정의된다”(무어, 2020: 99).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자본 축적을 위해 이러한 저렴한 자연을 끊임없이 탐색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산출할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어에 의하면, 저렴한 자연은 자본의 축적 전략이 된다. 이러한 축적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상품체계 바깥에 있는 인간과 나머지 자연의 무상 일/에너지를 전유하기 위한 전략이며, 무어가 전유의 프런티어 또는 상품 프런티어(commodity frontier)라고 지칭한 것의 확충을 포함한다. 상품 프런티어는 상품화되지 않은 자연의 부를 전유하는 자본주의적 테크닉스, 즉 도구와 관념, 권력과 자연의 구체화가 전개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9) 무어가 제시한 ‘전유에 의한 축적’ 개념은 하비가 제시한 ‘탈취에 의한 축적’과 상당히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양 개념은 노동의 착취(또는 확대재생산)에 의한 축적과 범주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무어의 ‘전유에 의한 축적’ 개념은 노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자연(그리고 여성, 식민지)의 일/에너지를 강조하지만, 하비의 탈취에 의한 축적 개념은 마르크스의 시원적 축적 개념에서 유래하지만 특히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축진된 자연의 상품화, 민영화, 금융화와 국가재분배와 위기관리 등과 관련된다(하비, 2007).

(무어, 2020: 108). 이광근(2020: 132)이 서술한 것처럼, 무어(2003)는 상품 프런티어라는 용어를 “홉킨스와 월러스틴(Hokins and Wallerstein, 1986)의 ‘상품사슬’ 개념과 브로델(Braudel, 1972: 66~67)의 ‘프런티어’ 개념을 조합하여” 고안했다. “상품사슬이 완제품으로부터 생산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며 공정 간 흐름에서 잉여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이라면, 상품 프런티어는 이 공정에 투입되는 원자재 생산의 장소에 초점을 맞춘다.”

무어는 이러한 상품 프런티어의 개념을 통해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 개념과 더불어 하비(1995)가 제시한 ‘공간적 조정’의 개념을 동시에 설명하고자 한다. 예로 15~16세기 지중해 경제에 관한 브로델의 설명에 의하면,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지중해 연안에 자신의 프런티어를 확장하여 배후지를 확보하면서, 이곳을 단일작물 경작지로 과잉 개발했다. 이로 인해 이곳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새로운 지역들이 지중해 세계경제에 편입되었고, 상품 프런티어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한편으로 도시국가들과 주변 지역들 간 물질대사의 균열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며, 또한 한 지역에서 더 이상 저렴한 자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면 자본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간적 조정’을 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품프런티어의 확대는 자연의 4가지 저렴한 것을 회복하고 재배치하는 내부적 재구성과 지리적 팽창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어(2020: 112, 115)는 “상품화와 전유의 지리적 운동은 가치를 통하여 공간을 상징적이고 물질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상호 결정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하비가 부각시킨 것처럼) 마르크스는 이러한 재구성을 ‘시간에 의한 공간의 절멸’이라고 부른다고 서술한다. 또한 그에 의하면, 자본에 의한 상품 프런티어 운동은 단순히 상품관계의 확대만이 아니라 무상 일/에너지의 상품 지향적 전유에 필요한 영토 권력과 지리적 지식의 전개를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16세기 초기 자본주의는 이러한 상품 프런티어의 확대를 통해 미자본화된 자연 전체를 생산력으로 취급함으로써 획기적 방식으로 형성적 자연을 개조했으며, 장기 19세기와 20세기의 거대한 팽창은 저렴한 석탄과 석유, 저렴한 금속, 저렴한 식

량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무어에 의하면, “이러한 자본주의의 저렴한 자연 전략의 비범함은 시간은 선형적인 것으로, 공간은 평평한 것으로, 그리고 자연은 외부적인 것으로 표상한 점”에 있다(무어, 2020: 112). 이러한 점에서 자본의 저렴한 자연 전략은 노동의 추상화뿐 아니라 자연의 추상화, 시공간의 추상화를 동반한다(무어는 이를 자본주의 전략에 의한 사회적 및 생태적 소외의 개념과 관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저렴한 자연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은 아무런 단절 없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무어에 의하면, 4가지 저렴한 것의 주기적 복구와 갱신은 복합적이고 불균등하게 전개되면서, 자연의 재/생산 조건을 경향적으로 소진한다(무어, 2020: 185). 이러한 점에서 무어는 ‘생태잉여’의 개념을 도입한다. 생태잉여란 “체계 전반의 자본 규모 대비 체계 전반의 무상 일/에너지 전유 규모의 비율”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 “투입에너지 대비 획득 에너지의 비율”로도 이해된다(무어, 2020: 162~163). 생태잉여는 예로 새로운 지리적 프런티어(지하자원을 비롯한)의 인클로저와 노동생산성의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을 결합할 때 나타난다. 무어에 의하면, 이러한 생태잉여는 점차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첫째, 엔트로피의 문제와 관련하여 오이케이오스(작동 중인 특정한 역사적 자연)에서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 둘째, 축적된 자본의 규모는 무상 일/에너지의 전유보다 경향적으로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 셋째, 자본의 재생산 시간과 나머지 자연의 재생산 시간 사이의 모순 때문, 넷째, 자본 축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낭비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무어, 2020: 164~166). 세계생태잉여의 저하, 즉 전유의 기회가 축적된 자본의 규모와 대비하여 저하할 때, 위기가 발생한다. 자본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은 새로운 전유 프런티어를 찾아내는가에 달려 있다.

무어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축적과 잉여가치의 창출은 세계를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의 자본화와 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창출된 ‘여성, 자연, 식민지’의 전유 간 변증법에 좌우된다. 위기의 문제는 상품화의 영역과 재생산의 영역 간 통합적 관계 속에서 전개되며, 잉여자본의 증가와 세계생태

잉여의 하락 경향은 서로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우리가 잉여가치를 생산의 자본화와 저렴한 자연의 전유의 변증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면, 자본주의가 의존하는 저렴한 자연이 점점 접근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위기를 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세계생태잉여의 저하 경향 속에서 자본의 축적이 점점 더 낭비적이게 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가 잉여가치 대신 ‘부정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부정적 가치란 ‘네 가지 저렴한 것(식량과 노동력, 에너지, 원료)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가로막는 생명의 거물 속 자본에 대한 한계의 누적’으로 이해된다(무어, 2020: 436). 무어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러한 부정적 가치가 창출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이해한다. 부정적 가치의 축적은 자본의 회로에서 이루어지는 잉여가치 생산과 내재적 모순이며, 생물권과 그 생물학적 체계의 진행 중이며 임박한 비선형적 전환들, 생산비의 상승, 현행 자본의 과잉축적 문제 등을 유발한다.

무어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흔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정이나 여타 방안들을 모색하지만, 부정적 가치의 누적은 문제 해결 방안의 모색을 점점 더 어렵게 한다. “자본주의의 기원부터 내재하였지만 잠복하였던 부정적 가치의 축적은 이제 더는 기술적 재편이나 조직적 재편, 제국주의적 재편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모순을 제기”하게 된다(무어, 2020: 433). 자본주의는 기능하기 위하여 자신을 점점 더 비싸게 만듦으로써 그 자신을 훼손하게 된다. 예로 기후변화와 슈퍼잡초는 부정적 가치의 2가지 흐름을 나타낸다. 이들은 비인간 자연이 인간의 기술적 규율보다 더 빨리 진화하는 경향을 가진다. 새로운 상품-전유 프런티어를 구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는 저렴한 자연에 대한 자본의 수요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연의 능력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점이다”(무어, 2020: 467). 자본주의가 이러한 근본적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즉 지금까지는 금융화로 전환과 재생산 권역에서 자본화의 심화가 이러한 위협을 지연시키는 강력한 방법이었고, 이에 따라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지만, 자본주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인가는 알 수 없다(무어, 2020: 480).

## 5. 세계생태론에 대한 비판과 재이해

### 1) 세계생태론 비판

세계생태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무어의 저서,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의 출판은 생태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인류가 봉착한 지구적 생태위기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자들, 특히 인류세/자본세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sup>10)</sup> 무어는 이 저서를 출판한 이후에도 자본세에 관한 논문들(Moore, 2017a, 2017b)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자본세를 옹호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모은 편집서, 『인류세인가, 자본세인가』를 출판했고(Moore, 2016a), 또한 파텔과 공동으로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라는 저서를 출간했다(파텔·무어, 2020). 그는 편집서의 서문(Moore, 2016b)에서 자본세를 ‘생명의 그물 속 권력, 이윤, 재/생산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한편, 산업혁명과 1850년대 이후 환경변화 그리고 1945년 이후 더욱 첨예한 가속화도 중요하지만 초기 자본주의의 환경 형성을 이해하지 않고 이러한 전환을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파텔과의 공동저서에서 무어는 앞선 저서에서 제시했던 자연의 4가지 저렴한 것들을 7가지(저렴한 자연, 돈, 노동, 돌봄, 식량, 에너지, 생명)로 확대하여 세계생태론의 관점에서 역사적 변화과정을 설명한다.

세계생태론과 자본세에 관한 무어의 주장은 많은 연구자들의 공감과 찬사

---

10) 이 책에 관한 많은 서평들 가운데 한평가(Somerville, 2018)는 기후변화 등 지구적 생태위기에 관한 여러 저서들을 함께 살펴보고 직접 무어(Moore, 2015)와 포스터(Foster and Burkett, 2017)의 저작을 비교한다. 그는 인류세는 혼돈에 빠뜨리는 용어로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개념적 도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자본세는 보편적 인류가 아니라 자본과 이를 통제하는 자들이 기후변화를 유발한 행위자임을 보다 정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어가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형을 비판하면서 대신 자연을 조직하는 한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물질대사 전환(shift)을 제안하지만, 자본주의는 자연을 조직하는 한 방법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며, 자연은 그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들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를 이끌어 내었지만, 또한 그가 비판·극복하고자 했던 물질대사 균열론자들의 강력한 ‘반비판(anti-critique)’을 받고 있다. 포스터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은 이를 위해 여러 논문과 저서를 출간했다(Foster, 2016; Foster and Burkett, 2017; 2018; Foster, Holleman and Clark, 2019), 포스터는 무어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을 위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선 자신의 생태마르크스주의 입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생태사회주의의 역사를 3시기(또는 단계)로 나누면서, 무어 및 그와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입장을 “급진생태학적 일원론” 또는 “일종의 [좌파] 인류중심적 일원론”이라고 비하한다(Foster, 2016). 포스터가 비판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무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철학자 벤사이드(D. Bensaid), 비판이론가 포겔(S. Vogel) 등과 ‘급진’ 지리학자 닐 스미스와 카스트리 등을 포함한다. 포스터에 의하면, 벤사이드는 자연이 자본주의 사회 내로 포섭되었다고 주장하는 급진적 일원론의 입장을 가지며, 포겔은 루카치와 마르크제를 사회와 자연에 관한 이원론적 견해를 가진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적 일원론 또는 전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연이 소외나 균열 없이 통합적 방식으로 사회에 포섭되었다거나, 또는 자연적 과정이 사회변증법에 내포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 사회의 변증법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포스터는 급진 지리학자, 닐 스미스와 카스트리 등이 ‘자연의 생산’ 개념을 주창하면서, 초-사회적(hyper-social) 구성주의의 관점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sup>11)</sup> 즉 포스터에 의하면, “혼종성(hybridity) 또는 ‘관계성’을 강조하는 급진적 사회(공간)적 구성주의적 이론가들은 세계를 기계, 인공물, 사이보그 등등의 네트워크로 이해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마르크스도 혼종적 세계의

---

11) 닐 스미스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약간의 관심을 가지기는 했지만(Smith, 1996) 사회적 구성주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카스트리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연(social nature)’ 개념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며,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Castree, 2002; Castree and Braun, 1998; 2001 등 참조). 하지만 카스트리는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인류세라는 명칭을 수용하고 특히 행성적 한계 개념의 유의성을 강조한다.

등장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서구 좌파와 일원론/혼종주의와의 대면 증대는 생태적 마르크스주의와 급진적 사회일원론 간 인식론적 균열을 등장시키게 되었다”(Foster, 2016: 398). 포스터에 의하면, 데카르트적 이원론에 대한 대안은 무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상적 일원론이 아니라 변증법적 관점에서 혁명적 실천 개념을 자연과 사회의 물질대사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반비판을 개진한 포스터의 포괄적 입장을 전제로, 그가 무어의 세계생태론에 대해 어떻게 비판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포스터는 우선 무어가 자신의 견해를 ‘일원론적이고 관계론적인’ 것으로 설정하지만, 이에 따른 분석은 혼종성의 개념을 촉진하면서, “총체성으로서의 역사, 즉 마르크스적 관점에서의 역사를 자연과 사회의 물질대사의 변증법적 매개와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본주의와 자연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전체론, 일원론, 조화 등의 관념론적 사고, 또는 인간과 사회가 모든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혼합되고 다발로 묶인 것으로 이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Foster, 2016: 401). 무어의 일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과 사회의 물질대사에서 균열에 관한 마르크스의 개념화도 이원론적 견해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자본주의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그 일부가 되는) 자연 세계 및 자연적 과정에 대한 소외된 대립을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Foster, 2016). 즉 포스터에 의하면, 무어는 물질대사 균열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인간과 자연 간의 ‘소외된 대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이원론이라고 잘못 비판한 것으로 치부된다.

포스터는 나아가 무어의 “급진적 사회일원론은 환경을 사회에 포섭시키며, 결과적으로 자연을 사회로 환원시킴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변증법을 폐기한다. 이러한 관점을 특징지우는 인류중심주의는 흔히 경제적 환원론과 손을 맞잡고 전개된다. 경제환원론에서 생태적 위기는 이것이 자본의 경제적 위기를 나타낼 때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사실 새롭게 단장한 포스트모던 좌파 관점에는 부르주아적 사상의 모든 특징적 형태들이 다시 나타난다”라고 주장한다(Foster, 2016). 요컨대, 포스터에 의하면, 무어는 그

가 주장하는 관계적 일원론과 변증법적 관점을 혼동한다. 이원론에 대한 대안으로 무어가 제시한 “조야한 일원론은 변증법적 정교함이나 심층적인 혁명적 사명도 없으며, 이는 단지 이원론에 대한 답으로 혼종성이나 ‘묶음(bundling)’이라는 사고와 함께 일원론을 기계적으로 주장할 뿐”이라고 비판된다(Foster, 2016: 402).

포스터의 관점에서 보면, 무어가 물질대사 균열론을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배경은 이처럼 변증법적 관계와 자신의 일원론을 혼동하거나 후자가 더 설명력을 가지는 것처럼 인식했기 때문이다. 예로 포스터는 무어가 자신의 물질대사 균열론을 비판하면서, 대신 ‘단일한(singular)’ 물질대사를 강조한 것에 대해(무어, 2020: 3장), 무어가 “자연의 보편적 물질대사에 관한 마르크스의 복합적이고 변증법적 이해로부터 떠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포스터에 의하면, “사회적 물질대사는 총체성으로서 자연의 보편적 물질대사의 일부로, 변증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매개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무어는 ‘단일한 물질대사’를 선택하여, 일원론적 기반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이원론에서 해방된 물질대사로 인지하면서, 빈번하게 그가 지칭한 ‘이중적 내부성’을 구성하는 ‘인간-속-자연’ 그리고 ‘자연-속-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포스터의 해석에 의하면, 무어가 이렇게 한 것은 “추상적 사회적 자연” 내로 모든 자연적 과정의 포섭을 가정함으로써, 또는 같은 의미로 인간-역사적 과정의 추동력 하에서 이들의 함께 묶임을 가정함으로써, 자연의 자본주의적 소외의 실질적 자연-사회 적대성을 해체”시키게 된다(Foster, 2016: 404).

또한 포스터는 무어가 데카르트적 이원론 제거를 명분으로 라투르의 방식으로 모든 객관적 구분을 해체하거나 또는 개념들의 여러 의미를 중첩시키려는 시도로 인해 가치의 개념과 가치법칙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가치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어는 내재적 부로서 가치와 경제적(상품) 가치라는 두 가지 고전적 의미의 가치 개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을 단일한 일원론적 분석으로 결합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포스터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가치를 하나의 단일 틀로 통합하는 것은 마르크스 이래 경제적 과정으로 가치 법칙을 옹호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마르크스의 “가치법칙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역사의 특정 시기의 경제적·사회적 조직의 특징적 양상을 서술하는 일단의 명제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가치 비판과 문명을 특징지우는 광의적·규범적·문화적 유형으로서 가치의 사고를 중첩시키는 것은 가치법칙에 관한 마르크스의 역사적 사고를 초역사적 범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된다(Foster and Burkett, 2018).

비슷한 맥락에서 무어는 일원론적 관점을 전제로 에너지의 지출과 동일시 되는 일의 개념과 인간의 노동을 중첩시키고, 나아가 무상 일의 전유에 관한 보편적 개념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무상의 일을 가치 법칙의 중심에 두고, 노동력의 착취 문제를 축소시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점은 계급투쟁을 저렴한 자연을 전유하는 방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해함으로써, 물질대사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를 소거해 버리는 것으로 비판될 수 있다(Somerville, 2018).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터와 버켓(Foster and Burkett, 2018)은 무어가 자신들의 이론을 단순히 자본주의와 자연을 합친 ‘녹색 산술’이라고 비판한 것에 비견하여, 무어가 “지구의 생지질학적 과정의 형태에서 무상 일과 무상의 생계노동의 합은 가치법칙을 뒷받침하는 더 큰 부분”으로 부각시키면서 “생산에서 노동력의 착취는 대조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한다.

끝으로 포스터는 무어가 자신은 자본(주의)의 한계, 자연의 한계 등을 사용 하면서, 다른 연구(특히 물질대사 균열론)나 사회환경운동에서 ‘자연의 한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의 물신화라고 경고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무어는 “자본주의가 행성의 생물지화학적 과정에서 창출한 균열은 우리에게 단지 한 가지 의미의 위기, 즉 세계의 종말을 가져다준다”라고 파국론적 결과를 설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한계는 궁극적으로 생물권 자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추상적 의미에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신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무어, 2020: 110). 무어는 자본(성장)의 한계에 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마치 자연에 의해 외적으로 부여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무어 자신도 자본의 세계생태적 한계를 논의하면서, 저렴한 자연의 끝(종언)으로 인해 자본의 한계에 도달한다고 지적한다. 포스터는 이러한 주장도 역시 성장의 한계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 2) 세계생태론과 비판의 재이해

무어의 세계생태론에 대한 포스터의 이러한 반론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다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들 간 논쟁이 왜 유발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무어가 데카르트적 이원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원론적 설명을 부정하고자 한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로 포스터는 무어의 일원론을 비판하면서 그의 이론에서 “물질적 존재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고 주장한다(Foster, 2016: 401).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무어의 일원론에 영향을 미친 라투르의 관계론은 사회적 관계에서 이러한 물질적 존재를 이슈화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무어가 라투르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라투르 등이 제시한 평면(flat) 존재론을 거부하면서 이의 한계를 지적한 점이다. 예컨대 무어에 의하면, 평면 존재론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곤란한 쟁점은 전적으로 회피하면서 모든 것이 반드시 무언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역사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는 “거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주장된다(무어, 2020: 78).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터(Foster, 2016)가 지적한 것처럼, 무어는 그가 지칭한 ‘담론적 묶음(discursive bundling)’ 전략에 의존하여 모든 이원론적 색조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그는 혼종성을 나타내는 수사들(예로 묶음, 혼종체, 그물

등)을 사용할 뿐 아니라, 내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통하여(through)’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속(in)이라는 단어와 앞뒤로 하이픈으로 묶인 단어(예로 자연-속-자본주의, 자본주의-속-자연)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무어, 2020: 25). 이러한 점에서 무어의 저서에는 “놀랍게도 혼종체, 집합체, 네트워크, 묶음 등과 같이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이나 이와 관련된 여러 개념적 용어들”이 등장한다. 또한 무어는 이러한 혼종체를 지칭하기 위하여 오이케이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아니라 자연도 인간과 동등한 행위자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다양한 서술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는 라투르 등이 포함된 신유물론자들의 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인간-너머(more-than-human)의 연계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추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Block and Jensen, 2019: 1204). 이러한 점에서, 문제는 어떤 용어가 일원론적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인간-자연 세계를 단순히 이원론적 또는 일원론적으로 보는 견해를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내적으로 복합적인 대립과 모순들을 만들어내는가를 고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물변증법은 다시 신중하게 재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무어가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이론을 비판한 점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포스터에 의하면, 무어가 엥겔스의 저서에서 물질대사 균열로 인한 자연의 보복을 서술한 부분이 이원론적(변증법적이라기보다)이라고 비판한 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잘못 이해하거나 이들에 반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역사적 결과로서 설명을 요하는 것은 살아서 활동하는 인간과 이들이 자연과 물질대사적으로 교환하는 자연적·비유기적 조건들의 통일(unity)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비유기적 조건과 이러한 활동적 존재간의 분리, 임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만 완전히 가정되는 분리”라고 주장된다(Marx, 1973: 489; Foster, 2016: 407에서 재인용). 문제는 이러한 분리가 이원론인가 일원론인가를 따지기 보다는, 이것이 왜 발생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포스터에 의하면, 이러한 균열 또는 분리는 ‘계급사회의 소외된 배경 속에서 전개되는 위험한 분리’라는 점이다(Foster, 2016: 407). 인간과 지구 간

물질대사 관계에서 ‘균열’이라는 마르크스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인간 존재의 기반을 형성하는 자연적 조건들로부터 인간의 물질적 소원함을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Foster, 2000: 163).

무어는 포스터를 비판하면서, 물질대사 균열=분리=이원론이라고 주장하지만, 포스터에 의하면 물질대사 균열이론에서 균열=소외=변증법이라고 이해된다. 무어가 자연적 (정확히 말해 인간-자연의 보편적) 물질대사와 사회적 (자본주의에 특정한) 물질대사 간 구분을 이원론이라고 비판하면서 ‘단일한’ 물질대사 개념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적 물질대사’ (즉 노동과정)는 ‘자연의 보편적 물질대사’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과 사회의 물질대사의 특정한, 즉 소외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무어는 ‘이중 내부성’이라는 개념과 ‘단일한 물질대사’를 주장하면서, 자연 또는 생명의 그물은 자본주의와 분리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아무리 부분적일지라도 생물권의 관계를 내부화”하며, 동시에 자본의 힘은 “자본주의 과정에 대한 생물권의 내부화”를 편성한다고 주장하지만(무어, 2020: 서론 및 제3장), 이러한 세계생태분석과 ‘이중적 내부화’ 및 ‘단일한 물질대사’ 개념은 그가 비롯한 “물질대사적 물질성”(Moore, 2015: 15)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체계적으로 배제한 결과라고 하겠다.

반면, 포스터는 무어가 세계생태론과 새로운 가치법칙에서 개념화한 자연에 대해 다소 모순된 비판을 제기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무어는 물질대사 균열론과 같은 이원론으로는 “공생산된 가치관계들이 세계생태의 일관성을 구성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포스터의 반비판에 의하면, 무어가 자본주의를 자연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설정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자연보다 더 실질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이러한 추상적 개념화에서, 자연의 존재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시장의 존재론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자연은 일단의 저렴한 것들(식품, 노동, 원료, 에너지 등)로서 경제의 투입물과 같은 하찮은 것으로 전락한다. 모든 생태적 위기의 문제는 단지 경제적 위기의 기반으로 이해된다”라고 주장한다(Foster, 2016: 405).

이러한 주장에서 보면, 무어의 세계생태론은 자연보다 자본을 더 우위에 둔 것이 된다. 그러나 버켓과 공동집필한 논문에서 포스터는 무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법칙에 대해 ‘저렴한 자연의 법칙’으로 규정한 것을 비판한다. 무어에 의하면, “가치 생산에서 노동의 기여는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대부분 일이나 에너지의 폭넓은 전유에 의해 결정된다”(Foster and Burkett, 2018). 즉 무어가 제시한 ‘가치법칙’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 문제는 축소되고, 자연의 무상 일/에너지의 전유가 더 강조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포스터의 비판은 한편으로 무어가 자연보다 자본을 더 우위에 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착취보다 자연의 전유를 더 강조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일관성이 없다고 하겠다.

포스터는 이러한 무어의 확장된 ‘가치법칙’에서 저렴한 자연이 “가치의 실질적 기반으로 노동력을 대체한다. …… 이로 인해 노동가치론은 유령 같은 존재 또는 무형의 실체로 무시되며, 반면 가치화의 실질적 기반은 이제 생명의 그물 전체가 된다. 이는 모든 것의 가치론을 지향한다”라고 주장한다(Foster and Burkett, 2018). 무어가 시도한 가치법칙의 확장의 이론적 유의성과 애초에 마르크스가 제시한 노동가치론과의 일관성에 관하여, (생태)마르크스주의 내에서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어가 가치화의 기본 바탕으로 저렴한 자연이 제공하는 무상 일/에너지의 자본주의적 전유를 강조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념들, 예로 착취와 전유, 무상과 유상의 자연(노동 포함), 추상적 노동과 추상적 자연, 생태잉여, 부정적 가치 등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가치법칙의 확장을 시도한 점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무어의 연구에서 노동의 가치(특히 소외된 노동의 의미)가 다른 저렴한 자연들에 비해 점차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로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4가지 저렴한 자연의 하나로 간주되었지만, 『저렴한 것의 세계사』에서는 보다 일반적 범주인 ‘일’에 포함되어 사라져 버린다. 또한 무어는 가치 법칙이 “자연의 가치를 부르주아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모든 것”이라고 서술하지만, 여기서 자본에 의해 부르주아적 [즉 자본주의적] 가



치로 전환하기 이전의 ‘자연의 가치’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등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는다.

무어가 저렴한 자연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제시한 가치법칙의 재구성은 그러나 그가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끝부분에서 자본의 세계생태적 한계에 관한 논의에서 어떤 혼란스러운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 부분에서 무어는 “자연은 절대 저렴하지 않[으며], 저렴한 자연은 이원론에 전제를 둔 문명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한다. 무어 자신이 밝힌 것처럼 “자연은 외부화가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저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무어, 2020: 457, 467). 대신 그는 자본의 세계생태적 한계는 저렴한 자연의 끝이 아니라 ‘자본의 한계’, 즉 “저렴한 자연에 대한 자본의 수요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의 능력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무어는 자본이 기술 혁신이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저렴한 자연을 전유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전유) 프런티어를 개발하면 문제가 해결(또는 최소한 지연)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자본’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분석한 것이고, 자본이 전유하고자 하는 저렴한 자연의 재생산 문제 자체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무어는 자본의 한계(또는 자본축적의 위기)를 전유 가능한 저렴한 자연의 상품 프런티어의 소멸에 의해 유발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이토(2017)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위기의 극복과 대안적 생태사회의 전망을 논의할 경우, 누가 어떻게 이러한 전환을 이끌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토나 포스터는 다시 물질대사 균열이론으로 돌아가서, “인간과 자연과의 물질대사가 맹목적인 힘에 의해 통제되지 아니하고, 이 물질대사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자신들의 공동제어하에” 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사이토, 2017: 109). 또한 “물상화된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연합의 구축”을 통해 “물상화된 가치를 위한 생산으로부터 벗어날 때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불필요한 산업에서 노동력과 자원이 낭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마르크스가 『자본』 3권에서 주장한 바를 반영한 것으로,<sup>12)</sup> 자본주의에서의 이중적 소외, 즉 사회적 소외

와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의 극복을 전제로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물질대사 균열이론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무어의 세계생태이론의 관점에서, 그가 지적한 ‘자본의 한계’를 앞당기거나 이를 지연시키기 위한 자본의 무상 일/에너지의 전유를 막기 위하여, 인간-자연의 생태연합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이 재생한 일/에너지가 자본에 의해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공동체 존립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6. 생태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균열을 넘어서

최근 생태담론에서 인류세 개념이 등장하여 전 학문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접근 방법, 이론 체계 또는 관점 등의 차이로 인해 여러 논쟁들이 유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생태마르크스주의에도 점화되어, 연구자들 간 치열한 비판과 반비판을 이끌고 있다. 특히 생태마르크스주의 논쟁은 인류세라는 명칭 대신 ‘자본세’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인류세 대 자본세라는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칭에 관한 한 포스터의 제안처럼, 1950년대를 기점으로 홀로세 다음 지질시대를 ‘인류세’로 지칭하면서, 그 하위 ‘절’을 구분하여 인류세의 전기, 즉 자본주의 생산 및 생활양식으로 인해 지구적 생태위기가 심화된 시기는 ‘자본절’로, 그리고 인류세 후기, 즉 지구적 생태위기가 해소되고

- 
- 12) 마르크스는 『자본』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물질적 필수성의 영역은 그의 욕구의 결과로서 확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산력도 증가한다. 이 영역에서의 자유는 사회화된 사람, 결합된 생산자들에게 존재한다. 또한 그들과 자연과의 상호 교류를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맹목적 힘으로서 자연에 지배되는 대신 그들의 공동통제 하에 놓게 되며, 에너지의 최소 지출로서 인간 본성에 가장 유리하고 가치 있는 조건 하에서 이를 달성한다.” 여기서 생산력이 증가는 자본의 필요가 아니라 인간 욕구의 만족을 전제한다. 또한 여기서 자유는 소외를 벗어난 상태, 즉 사회적 탈소외뿐 아니라 ‘맹목적 힘’으로서 자연에 지배되는 상태, 즉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벗어난 상태 즉 생태적 탈소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최병두, 2010: 제5, 6장 참조).

공동체적 생태사회가 구축될 시기는 ‘코뮤니안’절로 지칭하는 것이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현재의 지질시대를 인류세 또는 자본세라고 지칭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부차적 논제로 다루어졌다. 그렇지만, 명칭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봉착한 지구적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마르크스주의가 어떤 관점이나 이론틀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태마르크스주의 내 이론적 갈등이나 간극은 사실 인류세/자본세 논쟁 이전으로 소급된다. 포스터가 서술한 바와 같이 생태사회주의 또는 생태마르크스주의는 1950~1960년대 이후 시작하여, 이제 60~70여 년의 역사를 누적시키면서 이론체계를 정교화하고 연구 주제의 폭도 넓혀 왔다. 이 과정에서 생태마르크스주의는 외적으로 다른 이론체계들과 대립적 경합을 벌여왔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전통 내적으로도 상이한 해석을 주장하는 연구자들 간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생태마르크스주의 내부의 이론적 균열이나 간극에서 어느 한쪽이 마르크스(주의)의 특정 개념을 비판한다고 해서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마르크스 이후 그의 저작들을 다양한 관점이나 이론체계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론가들 간 갈등과 반목이 흔히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또는 그로 인해) 마르크스주의는 개념적 외연을 넓히면서 이론적 통찰력을 발전시켜 왔다. 마르크스주의 일반에서 분화한 생태마르크스주의의 발전과정 역시 그러하며, 생태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전개된 여러 논쟁들, 특히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론과 무어의 세계생태론 간 논쟁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포스터는 인류세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인간과 자연 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태적 물질대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특정한 ‘사회적 물질대사’로 인해 균열이 발생·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질대사 균열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인류세 개념에 동의한다. 그러나 무어는 물질대사 균열의 개념 속에 함의된 분리, 예컨대 자연환경과 인간사회 간, 도시와 농촌 간 분리, 생태

적(보편적) 물질대사와 사회적(자본주의에 특정한) 물질대사 간 분리를 이원론으로 인식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하지만 포스터는 무어의 이원론 비판이 유물변증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이러한 분리를 유발하는 소외(노동의 소외뿐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소외)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다시 비판한다. 즉 무어는 포스터를 비판하면서, 물질대사 균열=분리=이원론이라고 주장하지만, 포스터는 물질대사 균열=소외=변증법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터에 대한 무어의 비판은 변증법을 데카르트적 이원론과 같은 것으로 단순화시키는 오해 또는 오류를 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포스터 역시 물질대사 균열 이론에 함의된 사회적 및 생태적 소외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다른 한편, 무어는 자본주의를 단지 ‘경제시스템’이 아니라 ‘자연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맑스의 개념들을 세계체계론과 결합시켜 세계생태론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배경으로 인류세 대신 자본세라는 개념을 주창한다. 특히 그는 장기 16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역사는 노동의 착취뿐 아니라 저렴한 자연(그리고 여성, 식민지)의 전유를 통해 자본 축적을 확대해 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무어는 ‘저렴한 자연’의 개념 외에도, 무상 일/에너지, 착취와 전유, 상품 프런티어, 추상적 자연, 가치관계, 생태적 잉여가치, 부정적 가치 등 다양한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재구성하고자 한다. 포스터는 이러한 무어의 접근방식을 구성주의적 또는 인간 중심주의적 일원론이라고 비판하면서,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을 왜곡시켜 노동이 아니라 무상의 일을 가치법칙의 중심에 두고 노동력의 착취 문제를 축소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에서 포스터는 자본주의와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포함시켜 가치이론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무어의 시도를 과소평가한 것처럼 보이며, 하지만 무어는 이러한 시도에서 제시된 여러 새로운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포스터와 무어는 현대 사회가 당면한 지구적 생태위기를 생태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본주

의와 생태위기가 어떻게 상호관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의 이론과 개념들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의 연구에 비판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각자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제시한 주장들에는 상당한 난점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상대방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도 어떤 오해나 왜곡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 간에는 세부 주제의 차이와 대립적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더 큰 틀에서 보면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주장을 보완하거나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론은 그 자체로서 유의성을 가질 뿐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소외를 개념화할 수 있는 통찰력을 내재하지만, 마르크스적 가치이론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무어의 세계생태론 역시 그 자체로서 유의성을 가지며 가치법칙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만, 마르크스적 소외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겨두고 있다. 생태마르크스주의적 연구자들의 주요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한계와 의문들을 해소하고 이들의 이론을 통합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하겠다.<sup>13)</sup>

13) 이를 위해 이들의 이론을 마르크스 이론으로 돌아가서 이를 배경으로 직접 결합시킬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이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 분야 또는 개념들을 찾아서 각 이론이 이러한 분야나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 또는 해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선 마르크스 이론에서 자연과 사회의 변증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무어는 자신의 주장에 분명 이러한 변증법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변증법에 관한 포스터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부정한다. 다른 가능성으로 이들이 다루는 세부 주제들에 관한 이들의 주장의 공통성을 찾는 것이다. 사실 양 이론과 그 연구자들은 지리학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의 이론이 이 학문 분야에서 더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지리학에서 ‘인간-너머’의 지리학 또는 ‘비인간 전환(non-human turn)’이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매개 개념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Barua, 2020; Buscher, 2021 참조). 그러나 포스터는 이러한 지리학 또는 전환을 일원론적 접근이라고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무어는 자연의 행위자성을 인정하면서 (인간 노동의 착취에서 나아가) 자연의 (무상) 일의 전유를 강조하지만 그의 이론은 다소 피상적인 ‘인간-너머’의 지리학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이론적·역사적 개념들을 동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구체적인 지리학적 개념(들)이 이들의 이론을 통합시킬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예로, 무어는 자본주의와 결합된 불균등 공간성을 배경으로

원고접수일: 2022.02.28.

심사완료일: 2022.03.12.

1차수정완료일: 2022.03.14.

게재확정일: 2022.03.16.

최종원고접수일: 2022.03.24.

---

다양성-속의-통합체들[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가치관계의 비판적 지리학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oore, 2017d). 다른 한편, 포스터와 공동연구자들은 자신의 물질대사 균열이론과 비판적 환경지리학에서 제시된 자연의 생산 및 탈인간주의적 세계생태론을 비교·평가하면서 자신의 이론이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Napoletano, Foster et al., 2019), 또한 이들은 비판적 지리학의 핵심적 논제들, 예로 하비의 ‘공간적 조정’의 개념과 관련시켜 도시/농촌 간 뿐 아니라 국가적·세계적(제국주의) 차원에서 물질대사의 사회공간적 균열을 설명하거나(Napoletano et al., 2015), 저렴한 자연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프런티어의 지리적 이전과 확대로 세계생태론을 설명하고자 한다(Moore, 2003). 이러한 점에서 보면, 양 이론은 공통적으로 하비의 ‘공간적 조정’ 개념을 수용하면서, 나아가 다규모적 공간적 불균등성을 전제로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Abstract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reconsidering a theoretical rift within ecological Marxism**

Byung-Doo Choi

In order to see a theoretical context of debate between the Anthropocene and the Capitalocene which has attracted a lot of interests in recent ecological discourse, this paper is to reconsider in comparison main contents of J.B. Foster's theory of metabolic rift and J. Moore's theory of world ecology. and central issues of what the former calls 'epistemic rift' between them. Drawing out and theorizing the concept of metabolic rift from Marx's works, Foster understands metabolic rift=alienation=dialectics, while Moore criticizes Foster's theory in several aspects as deeply committed to the Cartesian dualism, arguing metabolic rift=separation=dualism. Defining capitalism as 'a way of organizing nature', Moore has developed what he calls 'world ecology', and tried to describe history of capitalism since the longue 16 century, newly proposing or reconstructing various concepts such as unpaid work/energy, exploitation and appropriation, cheap nature, commodity frontier, abstract nature, value relation, ecological surplus value, negative value, etc. But Foster asserts Moore's world ecology as a hyper-social constructionist or left anthropocentric monism, criticizing that it has strayed from Marx's historical dialectics and law of value. This theoretical rift or conflict seems to have arisen, since there may be some difficulties or limitations in arguments for their own theory and there seems to be some misunderstanding or distorted interpretation of each other's theory in their critique and anti-critique. Yet, their arguments can be seen not as contradicting but as supporting and remedying each other's limitations and weaknesses. Thus, we need to consolidate these theories, especially in relation with Marx's theory of alienation and that of value, in order to reconstruct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sm and nature.

**Keywords: Anthropocene, capitalocene, ecological Marxism, Foster's theory of metabolic rift, Moore's World ecology, theory of alienation, law of value**



## 참고문헌

- 로일, 커밀라·장호중. 2020. 「마르크스주의와 인류세. 《마르크스21》. 37호, 68~103쪽.
- 마르크스, 칼. 1990. 『자본론』 제3권.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 마르크스, 칼. 1991. 『자본론』 제1권.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 무어, 제이슨(J.W. Moore). 2020.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김효진 옮김. 갈무리.
- 사이토, 코헤이(K. Saito). 2017. 「마르크스 에콜로지의 새로운 전개: 물질대사의 균열과 비데카르트적 이원론. 《마르크스주의연구》, 14권 4호, 92~112쪽.
- \_\_\_\_\_. 2020. 「전 지구적 생태위기의 시대에 마르크스의 물질대사 이론: 도이처 기념상 수상 강연문. 《마르크스주의연구》, 17권 2호, 91~118쪽.
- 스미스, 닐(N. Smith). 2017. 『불균등발전: 자연, 자본, 공간의 생산』. 최병두 외 옮김. 한울.
- 엔겔스, 프리드리히(F. Engels). 1989. 『자연변증법』. 윤형식·한승완·이재영 옮김. 중원문화.
- 이광근. 2020. 「세계생태와 역사적 자본주의의 구체적 총체성: 세계체계 분석의 지속 혹은 변신. 《아시아리뷰》, 10권 2호, 113~161쪽.
- 최병두. 2010.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 \_\_\_\_\_. 2018.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대한지리학회지》, 53권 2호, pp.149~172.
- 파텔·무어(R. Patel and J.W. Moore). 2020.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자본주의에 숨겨진 위험한 역사』. 백우진·이경숙 옮김. 북돋움.
- 포스터, 존 벨라미(J. B. Foster) 2016. 『마르크스의 생태학: 유물론과 자연』. 김민정·황정규 옮김. 인간사랑.
- 하비, 데이비드(D. Harvey). 1995. 『자본의 한계』. 최병두 옮김. 한울.
- \_\_\_\_\_. 2007. 『신자유주의』. 최병두 옮김. 한울.
- 해러웨이, 도나(D. Haraway). 2019.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틀루세. 김상민 옮김. 《문화과학》, 97호, 162~174쪽.
- Altvater, E. 2016. “The capitalocene, or, geoengineering against capitalism’s planetary boundaries.” in J. W. Moore(ed.),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Oakland, CA: PM Press.
- Angus, I. 2016. *Facing the Anthropocene: Fossil Capitalism and the Crisis of the Earth Syste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Barua, M. 2020. “Affective economies, pandas, and the atmospheric politics of lively capital.”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45(3), pp.678~692.
- Block, A. and Jensen, C.B. 2019. “The anthropocene event in social theory: on ways of problematizing nonhuman materiality differently.” *The Sociological Review*, 67(6), pp.1195~1211.

- Braudel, F. 1972. *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II*. New York: Harper Torch Books.
- Buscher, B. 2021. "The nonhuman turn: critical reflections on alienation, entanglement and nature under capitalism."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DOI: 10.1177/204382062111026200.
- Castree, N. 2002. "False antitheses? Marxism, nature and actor-networks." *Antipode* 34(1), pp.111~146.
- \_\_\_\_\_. 2014. "The anthropocene and geography I: The back story." *Geography Compass*, 8(7), pp.436~449.
- Castree, N. and B. Braun. 1998. "The construction of nature and the nature of construction." in B. Braun and N. Castree(eds.), *Remaking Reality*, London: Routledge, pp.2~41.
- Castree, N. and B. Braun(eds.). 2001. *Social Nature: Theory, Practice, and Politics*. Oxford: Wiley-Blackwell.
- Foster, J. B. 1999. "Marx's theory of metabolic rift: classical foundations for environment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2), pp.366~405.
- \_\_\_\_\_. 2014. "Foreword", to Burkett, P. *Marx and Nature*, Chicago: Haymarket, pp.vii~xiii.
- \_\_\_\_\_. 2016. "Marxism in the anthropocene: dialectical rifts on the left." *International Critical Thought*, 6(3), pp.393~421.
- \_\_\_\_\_. 2020. *The Return of Nature: Socialism and Ecolog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_\_\_\_\_. 2021. "Marxism and the dialectics of ecology."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April(2021), pp.1~16.
- Foster, J.B. and Brett, C. 2021. "The capitalinian: the first geological age of the Anthropocene." *Monthly Review*, 73(4)(Sep), pp.1~16.
- Foster, J.B. and Burkett, P. 2016. *Marx and the Earth: An Anti-Critique*. Leiden: Brill.
- \_\_\_\_\_. 2018. "Value isn't everything." *Monthly Review*, 70(6), pp.1~17.
- Foster, J.B. and Clark, B. 2020. *The Robbery of Nature: Capitalism and the Ecological Rift*.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 Foster, J.B., Clark, B. and York, R. 2010. *The Ecological Rift: Capitalism's War on the Earth*.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Foster, J.B., Holleman, H., Clark, B. 2019. "Imperialism in the anthropocene." *Monthly Review*, 71(3), pp.70~88.
- Hopkins, T. and Wallerstein, I. 1986. "Commodity chains in the world-economy prior

- to 1800.” *Review*, 10(2), pp.157~170.
- Malm, A. and Hornborg, A. 2014. “The geology of mankind? A critique of the Anthropocene narrative.” *The Anthropocene Review*, 1, pp.62~69.
- Marx, K. 1973. *Grundrisse*. London: Penguin.
- Mészáros, I. 1970(5th edn. 2016). *Marx’s Theory of Alienation*. Decatur, GA: Merlin Press.
- \_\_\_\_\_. 2000. *Beyond Capital: Toward a Theory of Transition*.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Moore, J.W. 2000. “Environmental crises and the metabolic rift in world-historical perspective.”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13(2), pp.123~157.
- \_\_\_\_\_. 2003. “Nature and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Review*, 26(2), pp.97~172.
- \_\_\_\_\_(ed.). 2016a.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Oakland, CA: PM Press.
- \_\_\_\_\_. 2016b. “Introduction.” Moore, J.W.(ed),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Oakland, CA: PM Press, pp.1~11.
- \_\_\_\_\_. 2017a. “The capitalocene, part I: On the nature and origins of our ecological crisis.”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4(3), pp.594~630.
- \_\_\_\_\_. 2017b. “The capitalocene part II: accumulation by appropriation and the centrality of unpaid work/energy.” *Journal of Peasant Studies*, 45(2), pp.237~279.
- \_\_\_\_\_. 2017c. “Metabolic rift or metabolic shift? dialectics, nature and the world-historical method.” *Theory and Society*, 46(4), pp.285~318.
- \_\_\_\_\_. 2017d. “Value in the web of life, or Why world history matters to geography.”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7(3), pp.326~330.
- Napoletano, B., Foster, J.B., Clark, B. and Paneque-Galvez, J. 2019. “Making space in critical environmental geography for the metabolic rift.”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09(6), pp.1811~1828.
- Napoletano, B., Paneque-Galvez, J.P., Vieyra, A. 2015. “Spatial fix and metabolic rift as conceptual tools in land-change science.”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6(4), pp.198~214.
- Somerville, P. 2018. “Preventing catastrophic climate change.”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9(3), pp.110~19.
- Smith, N. 1996. “The production of nature.” in G. Robertson et al(eds). *FutureNatural: Nature, Science, Culture*. New York: Routledge.
- Swyngedouw, E. 2006. “Circulations and metabolisms: (Hybrid) natures and (cyborg) cities.” *Science as Culture*, 15(2), pp.105~121.